



경상지역
느티나무

일부러 불을 붙였으나 타지 않은 느티나무



지정번호

대구-6-2

지정년도

1982

관리기관

대구

수령

360년

수고

17m

흉고둘레

5.5m



대구시 수성구

수성1가동 642

35° 46′ 26.28″ N

128° 25′ 17.88″ E

도심의 아파트 담장 사이에 있는 보호수(대구-6-2) 느티나무는 3그루가 각각 3~5m의 간격을 두고 나란히 자라고 있다. 느티나무의 나이는 360년으로 추정된다. 3그루 보호수 중 가장 큰 것의 나무높이는 17m, 가슴높이둘레는 550cm, 밑동둘레는 650cm 정도이다. 나무갓은 3그루 전체가 너비 40m 정도를 펼치고 있다. 느티나무는 썩은 부분을 충전재로 채우는 등의 외과수술이 되어 있고, 가지가 말라 죽어 베어낸 부분이 눈에 띈다. 생육상태는 양호한 편이지만 3그루 중 가장 작은 가운데 것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다. 지표면에 맥문동 등의 지피식물을 심어 보기 좋게 관리하고 있다. 전승하는 이야기는 영험 서린 느티나무라고 알려진 것이다. 일제강점기 대구에 있던 일본군 보병 80연대 병력 일부가 이 느티나무 아래에서 쉬고 있을 때였다. 일본군은 느티나무를 발길로 차기도 하고, 나뭇가지를 꺾거나 대검으로 꺾질을 찔러 버기는 행패를 부렸다. 이를 본 한 노인이 이 느티나무는 동네의 수호신이니 나무 아래에서 무례한 행동을 하지 말고 조용히 쉬어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러나 군인들은 어르신(노인)의 말을 미신으로 여기고 느티나무가 신목인지 아닌지 시험하여 보겠다며 나무 주위에 보리 짚단을 쌓아 불을 지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도 주민들은 일본군이 총칼을 갖고 있어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그때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도 보리 짚단에 붙은 불이 다른 나무에 옮겨 붙지도 않고 꺼졌다. 일본군이 또 다시 짚단에 불을 붙이자 맑았던 하늘이 어두워지면서 갑자기 비가 내리고 벼락이 내려왔다. 일본군은 벼락을 맞고 연기를 마시면서 그 자리에서 쓰러지더니 거품을 토하며 숨이 끊어져 버렸다. 그 후로 동네 사람들은 어린이들은 물론 누구나 이 느티나무를 발로 차거나 가지를 꺾으려고 하면 이런 이야기를 하며 나무를 해하지 못하게 하였다. 느티나무는 오랫동안 마을을 보호하는 수호목인 동시에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신성한 당산목으로 모셔져 왔다. 매년 정월대보름이 되면 동민의 복을 비는 동제를 나무 앞에서 지내고 있다.